

최정우 “소재 간 협업으로 사업기회 확보” (포스코 회장)

포스코 포럼

“생산·고객 가치 혁신 끊임없이 노력”



포스코 최정우회장이 인천 송도 인재창조원에서 열린 '2019 포스코포럼'에서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심플로우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첫째 날은 대외 거시 경제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경영환경세션'을 열어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환경에 대한 강의와 '미·중 무역전쟁 속 위협과 기회'를 주제로 한 강연 및 토론을 진행했다. 또 한비자, 사기(史記) 등 중국 역사 속 인물과 사례를 통해 리더십과 소통, 조직운영의 원리 등에 대해 탐구 했으며, 저성장시대 비즈니스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그룹 사업구조와 성장전략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저성장시대 비즈니스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그룹의 사업구조와 성장전략을 점검했다.

둘째 날에는 포스코의 기업시민 활동 1년을 점검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기업시민세션'과 미래 트렌드 변화에 따른 사업의 전환을 다루는 '사업전략세션'이 열렸다. 이와 함께 ▲공생가치와 산업생태계 ▲기업시민 활동과 사회적 공감 ▲신뢰와 창의의 조직문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주제로 한 패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마지막 날에는 포스코그룹 임원들이 이틀간의 세션을 종합해 그룹이나 아길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양성운 기자

또한 연사와 청중이 소통할 수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대만에서 올레드 포럼을 열고 생태계 확대에 나선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D, 노트북 강국臺서 올레드 기술력 과시

글로벌 IT 기업인 350명 참석
센서 융합 기술 로드맵 선봬

삼성디스플레이가 대만 노트북 시장에도 올레드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삼성디스플레이 7일 대만 타이베이 그랜드메이플 호텔에서 '삼성 OLED 포럼 2019 타이베이'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HP와 멜, 레노보와 애플 등 대만을 포함한 글로벌 IT와 ODM 업체 25개 고객사에서 350여명이 참석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올레드 노트북을 정체된 IT 시장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소개했다. '올레드 노트북의 새로운 시대'를 주제로 가벼운 디자인적 유연성과 무한대 명암비, 야외 시인성 등 프리미엄 노트북에 필수 화질 특성을 강조했다. 지문 일체형 디스플레이, 사운드 일체형 디스플레이 등 센서 융합 기술 로드맵도 선보였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에는 상반기 13.3인치와 15.6인치 노트북용 올레드를 개발하고 IT 업체와 협력해 13종 노트북을 출시한 바 있다. 내년 중에는 13.3인치 FHD 모델을 추가 출시해 제품 라인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웅 기자

현장출동 없이 5G 품질 최적화

LG유플러스, 세계 최초 상용화
원격으로 무선 조종 가능해져
내년 전국망으로 확대할 예정

LG유플러스는 원격에서 5G 기지국 안테나의 서비스 범위와 방향을 조정해 무선망을 최적화할 수 있는 '5G 무선망 원격 최적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5G 무선망의 품질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품질 데이터에서 서비스가 불량한 위치를 자동 검출하는 시스템도 자체 개발했다.

이번 상용화로 LG유플러스는 서비스 품질이 불량한 지역에 대해 자동 시뮬레이션을 통해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기지국 안테나의 서비스 범위와 방향을 자동으로 도출하고, 이를 원격에서 손쉽게 5G 기지국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장 출동 없이 품질 최적화가 가능해지고, 5G 무선망 품질을 최적화하는 시간도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직원들이 '5G 무선망 원격 최적화' 기술을 상용화 소식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지금까지 기지국 서비스 범위와 방향을 결정하는 안테나 조정은 수작업에 의존해 매일 변화하는 무선망의 품질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또 품질 분석과 안테나 조정 작업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돼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LG유플러스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 5G 무선망 자동 최적화 기술을 우선 적용하고, 내년 전국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 박송철 NW개발그룹장은 "5G 서비스 품질이 불량한 지역의 발굴과 기지국 서비스 방향 변경을 자동화해 상시 최적 품질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로 인해 줄어드는 기지국 품질 최적화 시간은 고객에게 최상의 5G 품질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SKT, 특수학교에 코딩강사 300명 파견

장애청소년들에게 동등한 교육 제공
'행복코딩스쿨' 기초·심화 과정 구성
교과서 14종 제작 '에듀에이블'에 공개



수원 소재 자혜학교에서 학생들이 코딩스쿨 수업을 받고 있다. /SK텔레콤

SK텔레콤이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청소년들을 위해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에 나선다.

SK텔레콤은 올해부터 2020년 말까지 전국 특수학교(일반학교 특수학급) 100여개, 1000여명의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행복 코딩스쿨')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청소년 '행복코딩스쿨' 교육과정은 알버트 로봇을 활용해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을 받는 기초과정(10주)과 개인 및 팀단위의 코딩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심화과정(ICT메이커톤, 심화캠프)으로 구성돼 있다.

SK텔레콤은 교육품질과 수준 높은 수업진행을 위해 코딩 전문강사 300여 명을 직접 학교로 파견해 수업을 진행한다. 올해 진행 중인 '행복 코딩스쿨'

은 당초 40개교 모집임에도, 특수학교(급) 132개교가 신청했다.

SK텔레콤은 특화된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해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과 소프트웨어교육혁신센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의 특수교육학과 및 소프트웨어 교육학과 교수·특수학교 교사·기업체 등 30여명의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해 총 14종의 교과서를 만들었

다. 이 교재들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에듀에이블'(특수교육 전문 교육자료 포탈)에 공개됐으며, 장애 청소년 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활용 가능하다.

이번 장애청소년 '행복 코딩스쿨'은 노사협의에 따라 SK텔레콤 임직원들이 기본급 인상분의 30%를 내고, 사족에서 같은 수준의 금액을 출연해 매년 3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삼성전자 유품효율 가전 69개 '10% 환급'

해 개인별 20만원까지 구매가 10%를
환급해주는 행사다.

삼성전자는 '유품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대상이 대표 모델 기준 69개라고 7일 밝혔다.

유품효율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이 11월부터 12월까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전기밥솥 ▲제습기 ▲냉온수기 등 7개 품목에 대상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에 대

해 개인별 20만원까지 구매가 10%를 환급해주는 행사다.

삼성전자는 69개 품목에 이같은 혜택을 제공하며, 11월 말까지 진행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프로모션 혜택과도 중복 적용해준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김치플러스 보상 대축제도 진행 중이다. 김치플러스 비스포크 4도어와 3도어, 3도어 홈바 구입시 최대 30만원을 할인해주는 내용이다.

/김재웅 기자 juk@

LG '퓨리케어 미니' 중국 잡고 미국 간다

LG전자가 전세계로 소형 공기청정기 시장을 확대한다.

LG전자는 최근 중국 상하이와 광저우 등에 퓨리케어 미니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퓨리케어 미니는 지난 3월 처음 국내에 출시된 후, 상반기 대만과 홍콩 등으로 출시됐다. 이어 중국으로 시장을 확대했다. 올해 안으로 미국과 러시아, 태국과 아랍에미리트 등에도 퓨리케어 미니를 추가 출시하며 10개국으로 시장을 늘릴 예정이다. /김재웅 기자